톡 쏘는 홈 수다

혈압 상승 '엄카' 사용 실태기

아이에게 선뜻 내준 '엄카(엄마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엄마의 평온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과 금액까지, 웃픈 엄카 사용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사진 이지혜 wisdom@naeil.com



딸은 인형 뽑고, 엄마는 뒷목 잡고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니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어요. 독서실 비용이나 교재 구입비에다 가끔은 끼니를 해결할 때 쓰라고 엄마 카드를 쥐어줬죠.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상호명으로 1천 원이 결제되더니 2~3분 간격으로 다섯 번이나 연속해서 결제 알림이 오는 거예요! 카드를 분실한 건가, 결제가 잘못됐나, 머릿속에서 별별 시나리오가 다 펼쳐졌죠. 잠시 후, 집에 들어온 딸이 세상 해맑은 얼굴로 외쳤습니다. "엄마! 나 인형 뽑기 성공했어!" 아, 범인은 딸이었고 결제처는 인형 뽑기방이었어요. 엄마는 혈압 상승, 딸은 행복 상승입니다.

밥 사 먹으랬더니 굿즈를 사 왔네!

아이가 학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체험학습을 간다기에 맛있는 점심 사 먹으라고 카드를 줬어요. 그런데 점심은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굿즈를 야무지게 사 왔네요. 밥값보다 비싼 굿즈를 엄마 카드로 결제했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요. 그래도 밥값은 자기 용돈으로 냈다니 기특하긴 합니다. 그래, 좋은 추억도 만들고 마음에 드는 보물도 건졌으면 됐다! 다만 다음엔 밥은 엄카로, 굿즈는 네 용돈으로! 알겠지?



엄카로 쏜 한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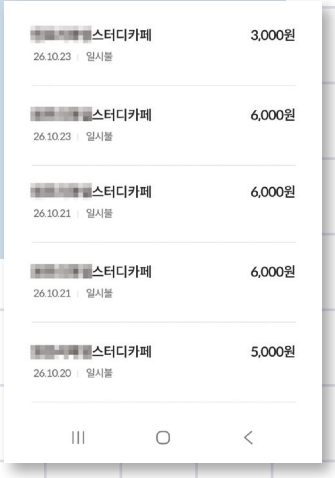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는 아이가 안쓰러워 "맛있는 거 사 먹고 힘내!" 라며 카드를 건넸어요. 한데 저녁밥을 짓던 중 날아든 결제 알림에 눈이 번쩍! 금액은 무려 8만4천 원, 상호는 '○○초밥'이 찍혀 있더라고요. 순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지 뭐예요. 급히 전화했더니 아이 왈, "엄마, 친구들이랑 초밥 정식 먹고 내가 결제했어". 아, 힘내라고 준 카드가 친구들과의 회식비가 될 줄이야. 그것도 시험 직전에요! 그날 밤 엄카는 즉시 압수했고, 엄마의 잔소리 폭격이 풀코스로 이어졌답니다. 초밥은 배불렀겠지만, 엄마 속은 쓰렸죠.





스카는 왜 자꾸 엄카로?

아이는 학교 독서실을 신청해놓고도 하루가 멀다 하고 스터디카페를 찾아요. 학교 독서실은 친구가 별로 없고, 시설도 불편하다나요? 반면 스터디카페는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칸막이 책상과 오픈형 책상 중 골라 앉을 수 있어 좋다는 게 아이의 설명이에요. 하지만 엄마 눈에는 자유로운 출입과 친구들과의 수다가 진짜 이유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스터디카페 비용은 전부 엄카로 결제. 비상시에 쓰라며 준 카드이건만, 도대체 비상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아이가 공부할 때마다 엄마 지갑도 같이 출석 체크합니다.



Reporter's NOTE

카드 결제 내역을 들여다보면 몰랐던 아이의 취향과 씀씀이는 물론 때로는 예상 밖의 배짱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를 놀라게 하는 이 순간도 언젠가 제 몫의 돈을 벌기 전, 잠시 누리는 성장통이겠죠. 그때가 되면 '너 옛날에 정말 대단했지!'라며 웃을 수 있기를요.